

축 하 메 세 지

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그 몸을 나투셨습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뉴욕불광선원 역시 고향을 떠나 지구 반대편에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물론 그들의 2 세들과 미국 현지인들을 위한 참다운 부처님의 전당이 되고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 줄 압니다.

불광선원 신축법당 개원 1 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앞으로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서 우리동포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는 미주 제일의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.

아울러 이번 예술제를 통해 불교전통음악의 계승과 더 나아가서는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발원합니다.

불기 2554 년 6 월 6 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